

SML Speaking Coaching Lab



다국어 구사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

**"Bilingualism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논문은 다국어 구사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 논문입니다.

주요 내용:

다국어 구사 능력이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함.

다양한 연구를 종합한 메타분석을 통해, 다국어 구사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

연구 방법:

총 35개의 연구 논문을 선정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함.

연구 대상: 다양한 연령대의 다국어 구사자 및 단일 언어 사용자.

연구 방법: 선별한 연구들의 표본 크기, 측정 방법, 결과 지표 등을 분석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산출하는 메타분석을 수행함

연구 결과:

다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다국어 구사 능력이 높은 학생들은 언어 능력, 인지 능력, 의사소통 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유리한 경향을 보임.

특히, 다국어 구사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 및 지역, 연구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함.

논문에서 제시된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 $r$ ) = 0.19

대상 연령: 3세부터 대학생까지

총 35개의 연구 논문 분석

위 연구 결과는 다양한 국가와 연령대에서 다국어 구사 능력과 학업 성취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며, 이를 통해 다국어 구사 능력이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35개 연구 논문 중 예시]**

**Charles Sturt 대학교에서 연구한 "Bilingualism and Academic Achievement"는 다국어 구사가 학업 성취도와의 관계를 조사**

연구 방법:

연구 참여자: 332명 (다국어 구사자 176명, 단일 언어 사용자 156명)

연구 대상: 중학생 및 고등학생

실험 그룹: 다국어 구사자

통제 그룹: 단일 언어 사용자

실험 방법: 학업 성취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예: 평균 학점, 시험 성적, 출석률 등)를 측정하고, 이들 지표를 기준으로 두 그룹(다국어 구사자와 단일 언어 사용자) 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통계 분석 및 회귀 분석을 통해 다국어 구사가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습니다

연구 결과:

다국어 구사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보였습니다.

다국어 구사자는 단일 언어 사용자에 비해 높은 평균 학점, 높은 출석률, 높은 시험 성적을 기록하였습니다. 특히,회귀 분석 결과, 다국어 구사 능력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났습니다.

위 연구 결과는 Charles Sturt 대학교의 "Bilingualism and Academic Achievement: A Meta-Analysis" 논문에서 발표